조계종 미래본부 사무총장 종회의원 성원 스님 임명

진우 스님, 2월 1일 임명장 수여



경주 열암곡 마애불 바로 모시기 불사 등 조계종 핵심 종책을 담당하는 미래본부의 사무총장에 중앙종회의원 성원 스님<사진>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2월 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미래본부 사무총장 성원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진우 스님은 "미래본부는 종단이 추구하는 미래불사를 기획 · 실행하는 기관"이라며 "미래본부가 종단 미래를 여는 창구인 만큼 이를 이끄는 사무총장의 임무는 막중하다. 성원 스님께서 역량을 잘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성원 스님은 1993년 혜인 스님을 은사로 수계하고 총무원 사회국장, 약천사 주지를 역임했다. 현재 신제주불교대학 학장, 자광원 원장이다.

신성민 기자

천태종 무원스님 "명락사에 다문화센터 건립 추진"

1월 31일 천태종 총무원장 신년기자간담회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천태종 제19대 총무원장 무원 스님은 1월 31일 서울 양재동 관문사 3층 회의실서 신년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무원 스님의 신년계획 발표 모습.

대충스님 탄신 1백년 준비위 구성
천태국제다문화센터 올해 설계 등
지하 4층, 지상 7층 약7천평 규모
'주경야선' 수행 활성화 등 추진해

대한불교천태종은 올 5~6월 경 2대 종정을 역임한 '대충대종사 탄신 100주년 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서울 봉천동에 위치한 명락사에 '천태국제다문화종합센터' 건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천태종 제19대 총무원장 무원 스님은 1월 31일 서울 양재동 관문사 3층 회의실서 열린 신년기자간담회에서 '자성 밝혀 만인과 소통하고 공생할 수 있는 세상 만들자'를 올해 천태종 종무 기조로 정하고, 주요 사업으로 '대충대종사 탄신 100주년 준비위원회' 구성과 '천태국제다문화종합센터'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무원 총무원장 스님의 은사이기도 한 대충 대종사(大忠 · 1926~1993) 탄신 100주년은 2026년 1월 23일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무원 총무원장 스님은 "남대충 대종사 탄신 100주년이 3년 뒤에 도래하는데, 이에 앞서 대종사님을 추모하는 다양한 행사를 기획할 준비위원회를 발족할 계획"이라며 "'자성을 밝힌다'는 올해 종단 기조도 제가 출가 당시 종정이던 대충 대종사에게 들은 가르침과 일맥 상통한다. 당시 '도(道)를 어떻게 닦습니까'라고 질문하자 대종사님께서는 '마음 하나만이라도 잘 쓰는 것이 바로 도를 잘 닦는 길'이라고 답하셨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원 스님은 "준비위원회를 통해 대충대종사 생전 법어와 가르침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생전 수행 모습 등을 사진 자료로 정리하는 등 기념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1세에 구인사서 출가한 남대충 대종사는 계행이 엄정하고 덕행이 돈독했으며, 대조사님의 가르침을 충실히 받드는 상수제자로 불철주야 수행정진에 매진했다. 1974년 7월 2일 천태종 2대 종정에 취임한 뒤 탁월한 지도력을 바탕으로 천태종의 비약적인 발전과 중생 교화에 진력했다. 이후 1993년 9월 3일 세수 69세 법랍 48세에 원적에 들었다.

또한 무원 스님은 '천태국제다문화종합센터'를 서울 관악구 봉천동 명락사에 건립 추진하는 것을 또다른 주요 사업으로 꼽았다. 명락사는 무원 스님이 주지를 맡던 지난 2009년 국내 최초의 '다문화 사찰'로 선포하고 다문화 포교에 앞장서 왔던 다문화포교의 원찰이라고 할 수 있다. 3년 정도 공사기간이 소요될 '천태국제다문화센터'는 지하 4층, 지상 7층에 연면적 약 2만3천㎡(약 7천평)규모이며, 예산도 400억원~500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특히 5층 정도에는 다문화 법당을 만들어 불교국가의 각나라 마다 특징있는 불상을 직접 현지서 이운해 전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무원 스님은 "다문화 센터가 완공되면 한국서 일하는 불교국가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기나라 불상을 모시고 종교 활동을 편히 할 수 있도록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천태종은 지난해 이어 올해 지속 사업으로 △'천태지관차법'의 전승 △ESG경영 선도 △어린이 · 청소년 대상 역사탐방 △제2회 천태문학상 공모 △ 평화통일 위한 제2회 임진각 통일문화제 △위드코로나 시대 '주경야선(낮에는 직장이나 가정에서 일하고, 저녁에 사찰에 모여 새벽까지 수행정진하는 수행)' 수행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특히 천태종 재가불자들은 여름과 겨울 각 한달간 구인사와 전국사찰서 안거에 드는 독특한 수행종풍을 이어어고 있으며, 이 기간외에도 각 사찰별로 '백만독 관음정진'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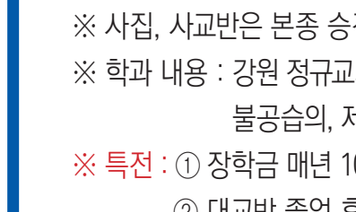
교육아사리 신규 위촉 응용불교 분야 등 7명

혜일 스님, 2월 2일 위촉식

조계종 교육원장 혜일 스님은 2월 2일 교육원장 집무실에서 신규 교육아사리 7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불교사 분야인 무진 스님은 중앙승가대에서 문화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문불전 분야인 서담 스님은 동국대에서 한문불전번역 전공으로 박사를 수료했다. 대승불교 분야인 진석 스님은 동국대에서 불교학으로 박사를 수료했으며, 선불교 분야인 진본 스님은 동국대에서 선학으로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응용불교 분야로는 3명이 이름을 올렸다. 영화감독으로 잘 알려진 구담 스님은 동국대에서 영화기획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법본 스님은 동국대에서 박사를 수료했다. 자헌 스님은 응용불교학을 전공해 동국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신성민 기자



해인사 "참회 우선… 종단 협조 주지 선출"

2월 1일 진각스님 명의 입장문
주지 선출 논란 관련 해명해

해인사가 주지 현응 스님의 범계 의혹으로 불거진 주지 선출 문제에 대해 해명하고 "종단 협조 하에 주지를 선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인사는 2월 1일 총무국장 진각 스님의 명의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일련의 사태에 머리를 숙이며 사과했다.

해인사는 "주지 현응 스님의 범계(犯戒) 의혹 등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과 불자님께 깊은 참회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해인사는 이번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고 다시금 청정 수행가풍을 이어가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주지 선출 루머에 대해서는 현응 스님의 범계가 본질임을 분명히 했다.

해인사는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해인사의 후임 주지와 관련한 본질은 전임 주지스님의 범계행위로 발생한 것이기에 해인총림은 전임 주지스님에 대하여 산문출송을 결의하고 참회 중에 있다"면서 "참회가 우선이지 주지 선출이 우선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인총림은 이러한 근신과 참회 후 총림대중의 의견과 종단의 협조 하에 여법하게 후임 주지를 선출하고자 한다"면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에 대해 조계종 중앙징계위원회의 결정과 호법부의 조사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해인사는 "총림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서릿발 같은 해인사 역대 조사님들의 가르침에 부응하는 해인총림의 위상을 되찾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앞서 해인총림 해인사 방장 원각 스님은 1월 30일 조계종 총무원으로 보낸 공문에서 "주지로 추천한 원타 스님이 추천 철회를 요청해 지난 1월 17일 접수한 해인사 주지 추천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1월 30일자로 종단에 해인사 원타 스님 주지 추천 철회 공문이 접수되어 주지 임명 절차 관련 논란들은 해소됐다"면서 "2월 3일 예정된 중앙징계위원회에서 현응 스님에 대한 징계가 결정되면 주지 직무대행 선정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조계사 '계층 포교 활성화' 팔 걷는다"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 신년 회견
42인조 어린이 오케스트라 준비 중
3월부터 직장인 명상프로그램 운영
주변정비 통해 총본산 성역화 추진
오는 3월 3일 동양금박 건물 철거



한국불교 1번지 조계사(주지 지현)가 어린이, 청소년 등 계층포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조계사 일주문을 가리고 있던 동양금박 건물 철거 등 사찰 주변 정비를 통한 총본산 성역화 불사도 본격화된다.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은 1월 31일 템플스테이 홍보관 3층에서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한 해 사업 계획 등을 발표했다.<사진>

지현 스님은 '이웃과 함께하는 조계사'를 모토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찰로 조계사를 이끌겠다. 이를 통해 조계사를 아름답고 감동있는 사찰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내비쳤다.

올해 조계사가 추진하는 주요 불사는 '하드웨어(△총본산 성역화 △신도조직 강화)' 부문과 '소프트웨어(△계층포교 활성화 △SNS 포교프로그램 개발 △대사회 지원 강화)' 부문으로 나뉜다. 특히 사실상 붕괴 지경에 이른 계층포교의 부흥을 위한 조계사의 추진 사업들이 눈길을 끈다.

가장 주목되는 사업은 '조계사 어린이 · 청소년 오케스트라' 창단으로, 사찰 단위에서 어린이 · 청소년을 대상으로 오케스트라를 창단 · 운영하는 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조계사는 지난해 바이올린 연주자 17명을 선발한 데 이어 현악 · 금관 · 목관 · 타악기 연주자 총 42명을 선발해 오케스트라를 창단할 계획이다. 첫 목표는 가을에 열리는 조계사 국화축제에서 공연하는 것이다.

지현 스님은 "언젠가는 아이들의 연주에 어머니들이 합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한다"며 "향후 조계사를 중심으로 주요 도심 사찰에서 어린이 ·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창단 · 운영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시범운영됐던 직장인 명상프로그램 '점심먹고 명상 어때'는 오는 3월부터 정식 운영된다. 조계사 뒤편에 위치한 청년센터 4층 법당에서 낮 12시 20~40분 운영되는 직장인 대상 명상프로그램은 명상 이론과 실습을 익힐 수 있어 주변 직장인들의 호응이 좋았다는 게 지현 스님의 설명이다.

총본산 성역화와 신도 조직 활성화를 통한 사찰 인프라 강화도 눈길을 끈다. 오는 3월 3일 총본산 성역화 불사의 시작을 알리는 동양금박 건물 철거식이 열린다. 지현 스님은 "2015년부터 2021년 말까지 상아불교사, 을유문화사, 상아빌딩, 은성식당, 동양금박빌딩을 매입했다"면서 "동양금박빌딩 철거를 계기로 한국불교 총본산 성역화 사업의 가시화와 주변정비는 물론 총본산 사격을 갖추기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월 10일 제27대 신도회가 출범하고 이승현 신임회장이 취임했다"며 "부처님오신날 이후 신도단합을 위한 대동제와 하반기 임원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전통불교전문 강원 학인 모집

본사에서는 출가 수행자들의 각행원만과 종지종풍을 확립하고
도제양성을 위해 강원학인(신입, 편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모집분야 및 자격(비구, 비구니, 사미, 사미니)
▶ 치문반 : 00명, 태고종, 타종단 승적 보유자
▶ 사집반 : 00명, 본사 강원 치문 수료자
(본사 강원 휴학, 자퇴자 가능, 단 퇴방 조치자는 불가)
▶ 사교반 : 00명, 본사 강원 사집 수료자
(본사 강원 휴학, 자퇴자 가능, 단 퇴방 조치자 불가)
※ 사집, 사교반은 본종 승적 보유자에 한함.
※ 학과 내용 : 강원 정규교과 外 서예, 특강,
불공습의, 제반의례의식
※ 특전 : ① 장학금 매년 100만원 지급
② 대교반 졸업 후 선원 입방 자격 부여
※ 제출 서류
① 입학원서 1부(본사비치, 입방시 작성가능)
② 승적원부 사본 1부
(타종단 동일, 본종 47기 수계자는 수계증 사본)
③ 가족관계 증명서 1부
④ 건강 진단서 1부
⑤ 사진 4매
⑥ 입방비 50만원 (강원 교재비 포함)
※ 입방 일자 :
2022년 12월 31일~2023년 3월 1일 까지
(입방일로 부터 습의과정 3개월 필요함)
☎ 연락처
본사 종무소 : 061) 754-5247 / 5953
강 원 : 061) 754-5954
010-3789-5247

전통불교강원 부설 특별강원(통학가능)

종단 구애(拘礙)없이 모든 스님(비구,비구니,사미,사미니) 수강생 모집 안내

종단에 구애(拘礙)없이 모든 스님(비구, 비구니, 사미, 사미니)들에게 선교양종대본산(禪敎兩宗大本山)인 조계산 선암사에서 누구든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시간이 없어 교육을 못 받는 스님들에 대한 배려와 함께하는 교육의 장을 마련하여 시대에 맞는 교육을 통한 불교계의 미래를 짊어질 인재를 양성하고, 승려의 자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사찰에서 통학을 하면서 주 2일 수강 하는 선암사 전통불교강원 부설 특별강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개강 일시 : 2023년 3월
▣ 강의 일정 : 매주 수, 목요일.(1박 2일, 1일 2시간)
▶ 첫째날 - 14:00 ~ 16:00 (2시간)
▶ 둘째날 - 03:30 ~ 04:40 (아침예불)
05:20 ~ 06:00 (발우공양)
09:00 ~ 11:00 (2시간)
※ 개인사정에 따라 매일 통학 가능
(코로나19확산 시 일정 변경될 수 있음)
▣ 과목
▶ 1학년(치문반) : 초발심자경문, 치문,
▶ 2학년(사집반) : 서장, 선요, 도서, 절요
▶ 3학년(사교반) : 능엄경, 원각경, 기신론, 금강경
▶ 4학년(대교반) : 화엄경
▶ 공통 : 의식, 외전(교양, 문화 등)
▣ 강사 : 선암사 전통강원 강주 목우스님, 강사 각안스님,
외래 초빙강사: 불교문학박사 법우스님,
철학박사 혜월(안유숙) 전법사
▣ 수강료 : 한 학기(6개월) 600,000원.
농협 351-0422-9291-33 예금주:선암사
▣ 특전
▶ 통학하며 수강.
▶ 4년 수강시 선암사 강원장(주지) 명의 졸업증서 수여
한 학년 수강 시 해당 학년의 수료증서 수여
▶ 타 교육기관에서 해당 학년 과목 이수자는 상위학년 편입학 가능
▶ 수강일 새벽예불, 발우공양 실시(희망자에 한 함)
▶ 타종단 승려도 수강 가능
▶ 성적 우수자에게는 각종 장학금 지급
▶ 졸업 후 선암사 선원 안거 자격 부여
▶ 졸업 시 선지도자 자격증 수여
▣ 등록서류 : 입학원서 외 (입학원서에 명시되어 있음)
▣ 등록마감 : 2023년 2월 28일
※ 입학원서는 선암사 홈페이지(www.seonamsa.net) 자료실에서 다운받아 사용.
※ 문의전화 061-754-5247, 5953

태고총림 조계산 선암사 주지·강원장 시 각 | 57909 전라남도 순천시 승주읍 선암사길 450 ☎ 061-754-5247, 5953